

건축, 공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반영체

건축과 공간의 철학적 의미...

새로운 철학이론 바탕으로 건축개념 발전시켜

김원갑 | 경일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건축은 철학적 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건축은 인간이 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전제로 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 존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건축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자신의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건축을 단순히 기술공학적 산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창작 욕구를 실현하려는 예술의지의 산물로 볼 것인가, 혹은 더 나아가 인간정신의 근원적 사유를 통한 철학적 산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건축은 그 모두를 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이 단순히 기술 및 예술과 통합한다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철학적 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건축가를 철학자에 비유했고, 17세기 이래 특히 19세기의 많은 독일 철학자들은 건축을 철학적 관념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건축이 단순히 바라보기 위한 3차원적 대상물인 조각과 달리, 주체로서 인간이 내부에서 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을 전제로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전제로 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건축은 인간의 삶, 존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의 의미와 상징은 철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는 건축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자신의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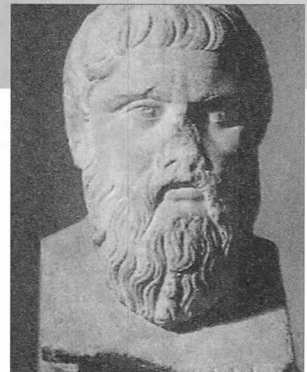
고전주의 시대의 건축철학

물론 건축에서 공간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한 것은 19세기 이후부터고, 19세기 후반부터 근대건축을 통해

발전됐던 공간론을 대체하며 20세기 후반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특정 지역의 장소개념을 선호했을지라도, 최근에 현대건축의 디자인에서 유행하는 위상 기하학적 유희들이 다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은 건축이 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건축의 철학적 개념이 공간에 관한 사유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고대의 건축개념은 오히려 대수학과 기하학에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는 수를 우주의 근본으로 보고, 우주는 이런 수들의 완전한 조화—1:2:3:4의 정수비—로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플라톤은 자신의 책, <티마이오스>에서 우주는 정사면체인 불, 정육면체인 흙, 정팔면체인 공기, 정십이면체인 물로 이뤄지는 정십이면체의 형상을 하며, 수학적으로 비례된 부분으로 분할이 가능한 기하학적 입체구조라고 주장했다. 즉, 우주는 'A:a=B:b'라는 유희에 의해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가 성립되며, 인체 역시 신의 조화를 표현하는 소우주로서,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므로 건축 역시 인간의 형상—비례를 이루는—에 따라 만들어질 때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양 고전 건축에서 1:2, 2:3, 3:4 등의 정수 비례를 평면과 입면에 적용하는 전통은 이미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서 시작됐으며, 이것이 서양 고전주의 건축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 즉 형이상학(metaphysics)



건축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사진은 건축철학의 발전에 기여했던 플라톤, 아퀴나스, 칸트.

의 기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건축의 기본이 되는 철학적 개념들은 사물을 추함과 혼돈에서 구분해주는 '질서' (taxis)와 '대칭' (symmetria), '올바른 배치' (diathesis/dispositio), '리듬' (eurythmia) 등의 수학적 개념들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건축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해 서양건축의 기본 뿌리를 형성해온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건축구성의 3요소' (구조적 견실함을 의미하는 Firmitas, 실용적 기능성을 의미하는 Utilitas,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Venustas) 역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세의 건축미학 역시 고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축의 모든 가치가 신을 위한 것으로 강화돼 고딕 양식의 성당들에서 종교적인 신비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 구조 시스템 자체의 혁신—예를 들면 공중 버팀벽 같은—을 통해 건축의 구조와 기능, 형태의 통합을 이뤘다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수학적, 기하학적 비례는 계속해서 사용됐다. “눈에 가장 아름다운 비례는 1:1이며, 그 다음이 1:2, 2:3...”이라는 성 아우구스티의 음악론이나 “비례가 화음과 동일이며 미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들은 이것을 설명해준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의 건축 역시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비례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르네상스의 이론가 알베르티(Alberti)나 팔라디오(Palladio) 역시 비트루비우스의 기하학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바로크 말기부터는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데카르트와 뉴턴 등에 의해 공간에 관한 새로운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근대의 건축과 공간 철학

데카르트는 근대의 절대적 공간개념을 주장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그는 xyz의 3차원 좌표로 표시되며 무한하게 펼쳐지는 데카르트 공간(Cartesian space)을 주장함으로써, 어떤 부분 공간도 전체의 공간과 동질하고, 일정 단위로 분할 가능하게 되는 추상적 절대공간 개념을 보여줬다. 이것은 이후 근대의 모든 공간과 시간 개념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으며,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장하듯, 선분적으로 분절돼 시간표에 따라 인간을 통제하는 시간-기계(테일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와 특정 방식으로 지형적 배치가 이뤄져 공간적으로 통제하는 공간-기계(예를 들면 공장이나 학교, 병원, 감옥 같이 근대의 건축적 산물들로 대표되는)의 방식으로 근대의 모든 인간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뉴턴 역시 절대적 시간과 함께 균질, 무한하고, 좌표의 상대적 공간에 의해 측정 가능하게 되는 절대적 공간을 주장하고 있다.

건축과 공간에 관한 좀더 철학적인 담론들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벌어진 독일 미학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1735년 바움가르텐(A. Baumgarten)이 '미학' (Aesthetic)이란 용어를 처

음 사용한 이래, 건축을 예술발전의 최초 단계로 폄하했던 헤겔부터 공간을 선험적 조건으로 보고 건축의 종속적 미만을 인정했던 칸트, 감정입 입론과 함께 건축의 본질이 입체적 매스를 통한 입체형식에 있다고 주장한 립스(T. Lipps)와 뵐플린(H. Wölfflin), 그리고 반대로 건축의 본질은 매스가 아니라 내부의 공간에 있다고 주장한 슈마르조(A. Schmarsow)에 이르기까지 19세기 말의 건축을 둘러싼 철학적 논쟁은 주로 공간과 매스 사이의 다양한 변증적 대립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세기 근대 건축의 역사는 절대주의(Suprematism)와 데 슈틸(De Stijl), 그리고 근대의 기하학적 추상과 기능적, 신즉물주의적 경향을 대표한 바우하우스(Bauhaus) 등에서 나타나듯이, 시간이 도입된 유동적 건축 공간에 관한 실험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정적 공간을 주장했던 뉴턴 대신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공간과 베르그송(Bergson)의 시간적 지속의 개념들이 20세기 전반 근대 아방가르드 건축들의 철학적 배경으로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의 건축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두된 1970년대 이후 건축은 오일쇼크와 불경기의 침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철학 이론들에서 이론적 배경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먼저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추상적인 공간 대신 장소성을 중시하기 시작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지역주의 건축을 유행시켰다. 이것은 또한 지역의 일정한 맥락을 도시와 건축 모두에 연속적으로 적용하려는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낳았으며, 그것으로부터 건축은 도시 내에서 일련의 연속성을 지니고 계획돼야 했다.

한편, 60년대부터 유행한 기호학과 언어학의 발전은 건축을 일종의 언어로서 파악하려는 관점을 보여줬으며, 포스트 모던의 다른 한편에서 구조주의의 영향 아래 건축의 각 요소들(구조적 부재 뿐 아니라 모든 평면, 입면 등의 형태와 상징적 의미에까지 이르는)을 하나의 기호로 보고 그것들의 언어적, 문장적 조합과 유희를 보여줬다. 피터 아이젠만 같은 건축가들의 통사론적 작업은 이것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나아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데리다(J. Derrida)의 해체 이론을 배경으로 해 건축에서 기존의 맥락과 정형의 형태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왜곡하는 해체주의 건축을 유행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들뢰즈(G. Deleuze)의 주름과 접힘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맥락주의와 해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드러운 연결의 공간이 건축에서 실험되고 있다. 결국 다원주의의 시대에 건축은 어쨌든 계속해서 새로운 철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